

광주 초미세먼지 2년 연속 역대 최저

광주보건환경연구원 2023 대기질 평가보고서 발간 타 주요 도시보다 '청정'...이산화질소 등 매우 낮아

광주 도심 초미세먼지 수치가 2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전국 다른 주요 도시보다 대기질이 청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3일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담은 2023년 대기질 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광주시 대기질 관측자료를 분석·평가한 보고서에는 일반 대기오염물질 6개 항목과 대기중금속 12개 항목의 연도·월별 측정값을 상세히 수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의 연평균 초미세먼지는 2022년과 동일한 17㎍/㎥로, 2015년 초미세먼지 측정 이래 역대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연평균 농도도 아황산가스 0.003㎍/㎥, 이산화탄소 0.4㎍/㎥으로, 1차 오염물질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았다.

이산화질소(0.014㎍/㎥)와 오존 0.033㎍/㎥ 수치도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낮아졌다.

전국 7대 특·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미세·초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농도는 더 낮았고 아황산가스, 오

존, 일산화탄소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 미세먼지는 인천(41㎍/㎥), 서울(38㎍/㎥)에 비해 5~8㎍/㎥ 낮았고, 이산화질소도 서울(0.020㎍/㎥), 인천(0.018㎍/㎥)보다 0.004~0.006㎍/㎥ 낮았다.

대기질 평가보고서는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에 게시하고, 환경분야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관련 행정기관 등에도 배포할 계획이다.

정현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민들에게 정확한 대기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건강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무등산·평두메습지 생태관광자원 활용 나선다

광주관광공사, 전문가 회의 개최 평촌마을 등 활용 상품개발 나서

광주시 관광공사는 "최근 무등산생태탐방원에서 '광주 생태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제7회 광주관광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 이번 회의는 호남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여영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오지욱 교수의 생태관광 개념과 동향분석, 광주연구원 김일권 연구위원의 광주만의 생태관광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광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패널토론으로 마무리됐다.

광주관광공사는 이번 전문가 회의 내용 등을 수렴하고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탐사루프도로 지정된 평두메습지,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역인 평촌반디마을 등 다양한 무등산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해 남부권 광역관광 특화진흥사업 중 하나로 지오스태이 상품화 개발 등에 나선



계획이다.

김진강 광주관광공사 사장은 "도심에 무등산국립공원을 품고있는 광주만의 매력을 살려 하루 더

한번 더 여행하고 싶은 체류형 생태관광 도시 광주, 광주만의 여행코스과 상품을 만들어내겠다"는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노숙인 복지 증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자치구·소방서 등 공동대응체계 구축...응급 잠자리·무더위 쉼터 등 제공

광주시가 노숙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광주시는 "지난달 31일 '2024년 노숙인복지 중사자 대화'에서 소외된 노숙인 등의 복지와 자립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광주시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노숙인복지 분야 평가에서 ▲노숙 예방을 위한 거리현장 지원 ▲노숙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 지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주거 지원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복지서비스 ▲노숙인 인권증진 정책기반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노숙인에 대한 현장 지원 활동을 비롯한 의료접근성 향상, 공공임대주택 지원, 지역사회 재정착 지원 등 노숙인 복지 증진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광주시는 역대급 폭염을 기록한 올 여름에는 거리노숙인과 비주거시설(쪽방) 거주민 보호를 위해 자치구, 경찰서, 소방서, 노숙인시설 등과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보호활동을 펼쳤다.

특히 대인동 쪽방상담소를 휴일·아간까지 무더

위쉼터로 연장 운영하고, 응급 잠자리와 생수 지원 등에 나선 덕분에 온열질환 등 폭염 관련 사건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광주시는 노숙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광주시사회서비스원에 의뢰해 비주거시설인 쪽방거주민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12월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노숙인 등 복지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손옥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숙인 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대구 의용소방대, 광주서 '달빛동맹' 재난발생시 상호 협력...광주비엔날레 관람 등 화합·우정 다져

광주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강형선)와 대구 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박명옥)는 "지난달 29일 광주비엔날레 등 광주시 일원에서 '달빛동맹 교류행사'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 달빛동맹 교류행사는 광주와 대구 의용소방대 간 화합과 우정을 다지고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매년 광주와 대구를 오가며 개최되고 있다. 이 행사는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홍보를 위해 광주의용소방대가 대구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으며, 올해로 9회째다.

이번 행사에서는 광주를 방문한 대구 의용소방대원 30명과 광주 의용소방대원 40명이 참석해 광주비엔날레를 관람하고, 역사 공동체 정신을 지켜온 양림동을 방문해 일상의 삶 속에 펼쳐지는 문화예술을 체험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산단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사업자 공모

광주시, 조식 지원사업 운영 등 11~12일 접수

광주시는 "오는 11~12일 작업복 세탁소 운영, 조식 지원사업 등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현장체감형 복지사업을 수행할 민간위탁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산단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는 유해물질이 묻은 노동자의 작업복을 저렴한 가격에 수거·세탁·배송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또 하남산단과 첨단산단에 조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아침식사를 거르고 출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 아침식사를 판매하고 있다.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수탁기관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내에 주소를 두고 최근 3년 이내 세탁소 운영 등 관련분야 사업을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다.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면 협약을 맺고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작업복 세탁소 운영을 맡

게 된다.

조식 지원사업 운영 수탁기관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내에 주소를 두고 최근 3년 이내 식품 판매 등 관련분야의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다. 이번에 선정되는 법인·단체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 조식 지원센터 운영을 맡는다.

위탁을 희망하는 법인·단체는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사업별 자격요건 및 기타 사항을 확인한 후 오는 11일, 12일 제출 서류를 구비해 노동일자리정책관실 노사상생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는 신청 법인·단체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추진 역량 및 전문성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석면피해 구제급여 신청하세요'

요양생활수당 등 올해 12억 지원

광주시가 석면으로 고동받는 건강피해자와 유족을 찾아 석면피해 구제 급여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석면 피해자로 인정되면 매월 최저 41만원에서 최고 174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을,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유족에게는 330만원의 장례비 및 최저 825만원에서 최고 약 4950만원까지 특별유족조

의금을 지급한다.

광주시는 올해 말까지 과거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거나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유족 62명에게 석면피해 구제급여(환경부 기금 포함)로 12억 6000여만원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전남대학교병원 등 흉부 CT촬영이 가능한 병원 56곳을 찾아 홍보 전단 등을 배부하고, 지하철역사·행정복지센터 등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